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가브리엘 로와, 20세기, 유리화, 레베 대성당, 프랑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르 1,16-18)

[제1독서] 요나 3,1-5.10

[화답송] 시편 25(24),4-5 가.6과 7 나.8-9
(◎ 4가)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2독서] 1코린 7,29-3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마르 1,14-20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성화 해설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가브리엘 로와

화가는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수많은 물고기가 걸려든 그물을 움켜쥐고 육지로 나오는 장면을 그렸다.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듯한 어부들의 얼굴에는 추종에 대한 확고하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역시 어부였다가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탄 배가 있다. <정웅모 신부의 ‘복음을 담은 성화’>

하느님의 말씀 주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언하였다(2019년 9월 30일).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이날을 봉헌하며 장엄하게 지내기를 권고한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 로고〉

복음 묵상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9년 9월 교황 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를 통하여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포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구원과 신앙, 일치와 자비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의 삶에 초대되어 마음을 연 첫 번째 제자들은 구원과 신앙, 일치와 자비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삶에서 용기를 내어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준 위로와 용기는 제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힘은 현대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화답송에 나와 있듯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느님의 진리로 이끌며, 올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갈릴래아로, 병자와 허약한 이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시고, 삶의 가장 힘든 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제1독서의 요나처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을 하라고 초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요나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요나의 깨달음은 요나 자신을 변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삶입니다. (신우식 토마스 신부)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선 '사랑의 길'

성 정 바오로 성당 제10대 보좌로 부임한 이태섭 요한 사도 신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야 43,1) 라는 서품 성구가 더욱 간절히 다가온다는 이태섭 신부는 이 곳에 머무는 동안 ‘공동체에 녹아드는 사제’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국에 올 준비를 하며 코로나 상황보다 더 걱정된 것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미국에서 맡은 소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민 사회의 생활방식이나 문화에 잘 적응하고 이들과 호흡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격리를 끝내고 신자분들과 만난 지금은 이런 걱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느님 사랑, 예수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만났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보면 큰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하느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며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과연 이 모든 개인적인 상황을 뒤로 하고 사제로서 살 수 있을까, 가족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대학원 1학년 때 또다시 나의 ‘부족함’이라는 한계에 맞닥뜨려 방황할 때에도 하느님은 저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르심에 감사하며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느님의 부르심은 잊고 제 자신만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야서 43,1)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다시금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손길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막연함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제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족한 제게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 자신을 올바르게 가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제게 큰 힘이 되는데, 고국을 떠나 이민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내가 물 한가운대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대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이사야서 43,2)

누구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신 집, 열려 있는 공동체를 꿈꾸다

저는 교회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단체 등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이가 언제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신 집’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다가가지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도 따뜻함과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무뎠던 보이고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웃음)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선 ‘사랑의 길’

신학생 시절 노래를 부르며(수원 가톨릭대학 갯등 중창단) 많이 행복했어요. 그때 부른 노래 중 ‘사랑하는 그대에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저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랑의 길’을 나섰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정에서 혼자 앞장서 걷기보다는 성 정 바오로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조용히 녹아드는 사제’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대 집 떠남 두려워 마오
 구름·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허기에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뿔을 바라보오

갈릴래아 호수라도
 그대 바람처럼 잔잔하진 않고
 가르멜산 오르는 길은

너른 산책길이 아닌 것을
 넘어져도 임의 자락 놓치지 마오

그대 나심은 출가요, 새로남, 이별,
 아픔, 십자가의 길!
 그분의 부름과 그대의 선택인 것
 사랑의 길인 것을!

두려워마오 그대여 주저마오
 무너져도 놓지마오
 그대가는 곳 하늘마을이랴오!
 참 잘 나셨다오!

〈류해욱 신부 시(원제: 출가) / 김동하 곡〉

1 2021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2021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56,000 입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Click Here)

2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본당 방문 미사

- 일시 : 1월 31일(주일) 오전 10시 (Mass of Installation of a New Pastor)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미사는 10월 3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3 2020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21년도 교무금 카드

- 2020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21년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납부 액수에 차질이 있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1월 24일)은 Church in Latin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2021년도 바오로딸 성경학교 성서교육과정 신청(교육부 주관)

- 내용 : 구약입문(1학년)/신약입문(2학년)
- 교육방법 : 우편통신 또는 이-러닝(E-learning)
- 학비 : 우편통신 \$220 / 이-러닝 \$224 • 마감 : 2021년 1월 25일
- 문의 : 윤로사리아 (703)850-2968 / 장베로니카 (703)470-6869

6 장수사진 찾아가세요

- 2020년에 촬영했던 장수사진을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 2021년 봄 학기 그룹원 모집

가톨릭 성서 모임은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합니다.

- 모임 형태 : 비대면 (ZOOM 프로그램 사용)
- 모집 대상 : 청년층: 19세 - 39세 청년 (로고스, 라파엘, 바오로)
장년층: 40세 이상 (베드로, 요한)
- 신청 방법 : 온라인: bit.ly/spccbible2021 (Click Here)
오프라인: 주일미사 전/후 사인업 테이블
- 공부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공부 기간 : 15주 동안 매주 1회 2시간
- 신청 마감 : 2021년 2월 1일까지
- 신청 문의 : 대표 봉사자 조다운 아녜스 (703.965.2988 / spccblm@gmail.com)

2021 LIVG (Life Is VERY Good) 행사

알링턴 교구 청소년국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매년 생명 수호 행진에 참가하는 이들을 기도 안에서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COVID-19 팬데믹으로 LIVG 행사와 생명 수호 행진 모두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LIVG 행사는 교구장이신 버빗지 주교님이 이끌어주시는 성체조배와 초청연사의 강연, 아름다운 찬양음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모임 형태 :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 행사 일시 : 1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본당 비대면 미사
(집전 : 이태섭 요한 사도 신부님)
1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9시: LIVG 생중계
(각 가정에서 직접 링크로 접속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LIVG 링크 : <https://m.youtube.com/watch?reload=9&v=XJzu17DWLlk&feature=youtu.be> (Click Here)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본당 수칙

• 주일 미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판정 후에도 2주간
- 기침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신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임산부, 최근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온 신자는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입장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99도 이상 입장 불가)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주간 : 호세 1-5, 묵시 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월 17일 (연중 제2주일)

주일헌금	\$2,446.00
교무금	\$13,540.00
교무금(크레딧카드)	\$4,600.00
감사헌금	\$800.00
온라인 봉헌	\$2,580.00
합계	\$23,96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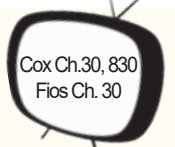
1월 27일(수) 오전 6:15-6:45 | 1월 30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1월 24일(주일) 미사 강론
- 성 정바로 성당 25주년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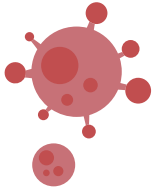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1월 28일(목) 오후 5:00-6:00
- 1월 29일(금) 저녁 8:00-9:00
- 1월 31일(일) 오전 6:00-7:00



1. CPBC 뉴스
2. 토크 콘서트 : 생명의 소중함과 낙테
3. 나의 하느님 : 난민운동가 유시환 요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 수칙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 미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후 **음성판정 후에도 2주간**
- 기침이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신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임산부, 최근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온 신자는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입장 시 준수 사항

-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입장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99도 이상 입장 불가**)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으로 표시된 좌석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신자들은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평화의 인사를 할 때는 손을 잡지 않고 가벼운 목례로 대신합니다. (**미사 중 신체적 접촉을 피합니다.**)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성당 내외 모든 장소에서 일정한 간격 유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예방을 위한 본당의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현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번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Youtube Channel
 **SPC Youth Media**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 10:00 AM		수요일	11:00 AM
	· 05:00 P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